'승풍파랑'(乘風破浪)
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뜻으로
원대한 포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거친 물살을 가르며 항해하는 배처럼
KIMA WEEK도 승풍파랑의 기세로
나날이 발전할 것입니다.

KIMA2014 WEEK

KIMA에 KIMA를 더하다!

– KIMA WEEK 2014 홍보용 매거진, 'KIMA plus 2호' 발간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KIMA WEEK 2014의 홍보용 매거진, 'KIMA plus vol.2'가 발간되었다.
작년 KIMA WEEK 2013 때 처음 발간된 KIMA plus는 이번에 2호를 맞이하여 KIMA WEEK 2014의 더욱 발전된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새롭게 대한민국해양레저네트워크 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문철호 조직위원장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KIMA WEEK 2014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 대한 정보와 해양도시 부산을 만들어가는 인물들,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지식 등 KIMA WEEK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아울러 엮였다.

그 중 KIMA WEEK 2014의 주요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 오프닝 개막식, 국제컨퍼런스, 국제보트산업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KIMA plus가 아니면 접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또한 부산에서 해양산업발전의 꿈을 키우는 국내·외 관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핵심 정보가 될 해양레저 관련 전문브랜드의 장비와 기술 등에 대한 소개도 실었다.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KIMA plus vol.2'는 KIMA WEEK 2014 개최 전, KIMA WEEK 초청장을 발송할 때 함께 배포할 예정이며 KIMA WEEK 홈페이지에서도 만날 수 있다. 작년보다 더 세련되어진 표지와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돌아온 KIMA plus는 KIMA WEEK 2014에 정보와 즐거움을 더 해줄 것이다.

BOAT SHOW NOW

넓은 해양산업시장의 바다에 물길을 틀어라!

– 싱가포르 국제보트쇼 (Singapore International Boat Show – SIBS)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있는 고층빌딩과 그 앞에 펼쳐진 바다.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것이다.

해양이 큰 관광 사업수단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2008년 처음 개최된 싱가포르 국제보트쇼는 어느새 아시아 3대 보트쇼 중 하나로 우뚝 섰다.

싱가포르 국제보트쇼에서는 럭셔리 요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수퍼요트와 소형 요트 전시가 주가 되어, 요트제조·대여, 엔진 및 부품, 요트 물류 및 통신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레저보트 회사들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옥외 선착장에는 브로커 및 대여 업체들이 여러 종류의 레저보트를 직접 시승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국제보트쇼는 대부분 레저보트의 중심산업지역인 유럽과 북미 쪽의 기업들이 참가한다.

부유층의 해안가 거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싱가포르 국제보트쇼는 그 규모가 커져, 회를 거듭할수록 고가 보트 제품 및 모델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동남권 해양레저지역
– 옛 정취가 남아 있는 바다, 송정

[부산〉 송정 편]

송정은 죽도(竹島)에서 시작하여 구덕포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진 곳이다. 부산 사람들에게는 광어골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송정 해수욕장은 해운대 해수욕장보다 상대적으로 개발 시기가 늦어 자연적이고 아늑한 분위기의 해변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정적이고 한적한 분위기의 해변이라고 해서 옛 정취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수심이 얕고 경사도가 완만한 지리적 특성으로 송정은 초보자들이 배우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송정 해수욕장이 관광레저특구로 포함되면서 이곳에 각종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시설들이 조성되었다. 잔잔한 파도소리로 운치 있는 송정 해수욕장은 관광레포츠와 만나 늦더위에 지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한번에 날려버릴 것이다.

■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스킨스쿠버

- 송정바다는 깨끗하고 맑아 깊이 들어가면 많은 어종과 해조류를 볼 수 있다. 공기통으로 호흡하면서 수중을 헤엄치는 스쿠버다이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의 수중 관광이 가능하다. 하지만 깊이 입수하는 것만큼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장비와 기본 수칙들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해야만 한다.

서핑

- 송정은 지형적으로 최적의 바람이 부는 시기가 길고 파도의 크기가 적당해서, 이미 서퍼들에게는 훌륭한 서핑 장소로 유명하다.

초보자도 단기간 교육을 받고 체험할 수 있어서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서핑을 위해 송정을 찾으며, 특히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윈드서핑

- 젊은 층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윈드서핑은 풍향에 맞추어 보드에 달린 돛의 각도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제대로 된 강습이 필요하다.

윈드서핑은 고가의 장비라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지만, 송정윈드서핑학교와 해운대송정마리나센터를 방문한다면 저렴하게 대여하여 세일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잔잔한 해변 근처에서부터 시작하여 능숙해지면 광안리, 해운대, 멀리는 오륙도까지 가는 코스가 있다고 하니, 짜여진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면 파도와 바닷바람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MARINE LEISURE

■ Check Point

☞송정바다축제

- 1996년부터 매년 8월에 축제의 밤, 주민노래자랑, 주민화합행사, 불꽃쇼 등이 진행된다. 그 중 송정 풍어제는 400여 년 동안 이어진 지방무형문화재 제32호로, 마을의 안녕과 화합, 풍어를 기원하고,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을 굿이다.

☞해운대송정마리나

- 맑고 아름다운 동해에 새로운 미래개념을 도입한 해양레저 복합공간으로서 국내 최대 해양레포츠센터이다. 2014년에 오픈 예정으로 각종 해양레저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과 해양레저 종목별 연맹 및 연합회 등 단체 단위의 회원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 관련단체 | 송정윈드서핑 · 서핑학교 www.surfschool.com (051)704-0664
해운대송정마리나 www.beachsports.kr 1899-1801

출처 : DIDIC Digital Image Design Innovation Center 디지털이미지디자인혁신센터

진하 해수욕장에서 만난 KIMA WEEK 2014

– 전국해양스포츠제전부터 '바다야 놀자' 까지 즐거운 해양레저체험 현장

'2014 울주진하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지난 8월 14일 목요일부터 4일간 진하 해수욕장에서 개최되었다. 정식종목인 요트, 핀수영, 카누, 트라이애슬론을 비롯하여 드래곤보트, 바다수영, 고무보트 경기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 경기가 참가팀과 관람객의 뜨거운 환호 속에 열린 것이다.
이 밖에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카이트보딩 시범, 블랙이글에어쇼, 모래조각 전시 등 다양한 해양문화행사와 해상과 육상에서 펼쳐진 체험프로그램도 관람객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8월 17일, 궂은 날씨에도 열기 넘치는 진하 해변에는 KIMA WEEk 2014의 홍보부스도 설치되었다. 해변과 어울리는 몽골텐트에는 다가올 KIMA WEEK 2014 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과 음료 및 간식이 마련되었다. 이번 홍보부스에서는 해양스포츠제전 조직위원회 맴버들이 KIMA WEEK 홍보 도우미가 되어 KIMA WEEK 축제 안내를 도왔고, 관람객들 중 추첨을 통하여 보트산업전 티켓과 바디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또한 진하 해수욕장 한 켠에서는 국내최초 해양버라이어티 '바다야 놀자' 촬영이 한창이었다. '바다야 놀자' 출연자인 유민상, 양상국, 채드 커튼, 김혁은 이번 촬영에서 래프팅보트와 드래곤보트를 체험했다. 진하 해수욕장에서 벌어지는 네 남자의 좌충우돌 바다 도전 프로젝트 '바다야 놀자'는 8월 30일과 9월 6일, 부산 MBC에서 오전 9시 45분에 방송한다.

흐린 하늘, 세찬 비도 무색하게 만들었던 진하에서의 KIMA WEEK 활동은 제9회 해양스포츠제전의 열띤 분위기에 힘입어 무사히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이제 40일도 남지 않은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KIMA WEEK 2014! 그 성대한 개막을 위해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KIMA WEEK 2014는 행사를 즐기는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최근 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기적인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를 받기 원하시면 komalnet@naver.com로 수신을 원하는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뉴스레터' 를 더 이상 구독하고 싶지 않거나
수신 메일을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komalnet@naver.com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KIMA WEEK 2014 사무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 TEL : 82.51.760.1143 FAX : 82.51.760.1134

Copyright (c) 2014 KIMA WEEK 2013. All Rights Reserved